

[사회]

대학정원 2009년까지 51,000명 감축

이중서 교육부 차관 밝혀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 국·사립대 통합할 수도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한층 강화하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이중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2009학년도까지 국·사립대 정원을 5만946명 감축하겠다는 대학 구

“경쟁력없는 대학 지원 없다” 개혁 압박
광주·전남지역 대학 구조조정 불가피

조조정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 9665명보다 7235명 줄이고, 지방 대학들이 2004년 정원 42만2591명보다 4만3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발표됐지만, 전국 총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공표하기는 처음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체제를 앞두고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감축규모는 그간 수차례 공식적으로

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취업·진학률·연구실적 등에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본보 7월7일자 6면)의 경우 통·통합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또 “국립대학은 국가 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오늘의 기사판

8월) 남대병원 심장 날 행사=오전 9시~낮 12시 전남대 의대 병화회관 대강당.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심장 질환 위험도 여부 체크하는 무료 검진(비만도·혈압·콜레스테롤 측정)과 건강 강좌(고혈압·고지혈증·

9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광주·전남지회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대상 2006년 연수강좌=오전 8시30분 전남대 의대 병화회관 대강당.

▲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8~9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광주 문화회관 소극장.

▲전남도립국악단 상설공연=8일(토) 오후 5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대병원 심장 날 행사 오전 9시부터

관상동맥질환·심장병 환자의 식이요법·심근증의 진단 및 치료·부정맥과 돌연사·심장수술, 건강 상담 등으로 진행. 문의 220-5784

▲제 42회 대한치과기공사학회 학술대회=김대중 컨벤션센터. 전국 치과기공사 6천여명 참가 예정.

▲국제페트를 챔버리 대회 공동대회장 추대식 및 워크숍=오전 11시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대강당.

▲죽녹원 상설 공연=8일(토) 오후 4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올해의 작가 ‘유애근’ 전=송구진=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 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우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동북아청년 평화포럼

오는 10일 광주서 개막

동북아시아의 한민족 청년·대학생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모색하는 제3회 동북아청년 평화포럼이 10일부터 15일까지 광주대학교에서 6일간 펼쳐진다.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하고 광주시와 광주대학교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등 4개국에서 온 11명의 재외동포와 국내 남녀 대학생 약 30명 등 모두 40여명이 참가한다. /임주희기자 jhlim@

한국 축구 1세대 김희진선생 별세



‘한국 축구 1세대’인 원로 축구인 김희진 선생이 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영안실 33호(02-3010-2293)이며, 영결식은 9일 오전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장남 김재환씨 등 3남2녀가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내방

▲김상봉씨(광주시 북구의회 회장) ▲최은초씨(“부의장)

하루 365mm 쏟아지면 광주천 범람

집중호우·태풍 닥치면 광주·전남 시설물엔?

영산강 계획홍수위 14m~340mm까지 관측아
극락대교 초당 30m·진도대교 34m 강풍 견뎌

제3호 태풍 ‘에우니아’(EWINIAR)가 우리나라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태풍은 현재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시속 148km의 ‘중형’ 태풍이지만, 북상하면서 점차 강해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더위가 한 달 정도 일찍 찾아오면서 천둥과 번개, 우박, 돌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광주·전남 하천과 주요 시설물은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까?

◇주요 하천=광주천은 하루 365.8mm의 집중호우를 버틸 수 있다. 지난 2004년 수립된 ‘광주천 종합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광주시에 중심지인 중앙대교의 홍수위는 43.15m(해발 기준), 현재의 제방 높이는 43.33m(천변 인폭)이다. 광주천은 그러나 570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유천교·영산강 합류지점까지의 도심이 0.1~1.7m 잠긴다.

영산강의 경우, 광산구 도산동 장록교 인근인 삼암(광룡강) 지점의

▲계획홍수위=하천 제방 높이보다 0.6~1.2m 낮은 위치로 수방시설 설계 시 기준이 된다. 100년 발생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최근 4년간 한반도 강타한 태풍 위력

연도	이름	최대강수량(mm/일)	순간최대풍속(m/s)
2002	루사	898	56.7
2003	매미	410	60
2004	매기	277.4	46.1
2005	나비	590.5	47.3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는 14.61m이다. 200년 빈도로 계산했을 경우, 하루 340mm의 집중호우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보고 있다.

◇다리와 건물=광주 최초의 사장교(斜張橋)인 극락대교(주탑 높이 36m)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양동 급호성



지난 2004년 8월 홍수로 붕괴된 영산강 제방. 영산강 인근은 하루 3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수해를 입을 수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명 빌딩(31층·124m)은 강한 바람에 대비해 좌우 50cm씩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한국 최초의 사장교(1984년 10월 완공)인 길이 484m의 진도대교

(너비 11.7m, 주탑 69m)는 순간 최대풍속 초속 34m를 견딜 수 있다. 또한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에도 끄떡없는 내진 1등급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고 제2006-07-01호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공고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및 주권채권공고)

교시임용(연수) 채용 모집

독일보청기

광주 30日報 廣告점주안내

산행안내

교육정보 (사립) 연수원

독일보청기 백화점

분양대행전문회사